한종희 "포르투갈은 삼성전자에 뜻깊은 국가"…총리 접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98676?sid=101

[서울=뉴시스]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장 한종희 부회장(왼쪽)은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을 찾은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를 만나 포르투갈 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삼성전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장 한종희 부회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을 찾은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를 만나 포르투갈 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한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1982년 포르투갈에 최초의 해외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등 포르투갈은 삼성전자에 있어 매우 뜻깊은 국가"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포르투갈에서 사회공헌활동 교육 프로그램인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통해 리스본 노바대학교 학생들과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lovelypsyche@newsis.com)  
  
  
  
  
기자 프로필  
  
  
  
  
  
  
  
  
  
  
  
  
  
  
  
  
  
  
  
  
이현주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청소기+패션쇼=?…삼성전자, '세상에 없던 초강력 청소쇼'  
  
  
구내식당에서 줄선 회장님…MZ세대가 선호하는 리더는?  
  
  
  
  
  
  
  
뉴시스의 구독 많은 기자  
  
  
뉴시스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뉴시스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뉴시스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뉴시스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뉴시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온라인 콘텐츠·크리에이터 소식…'튜브가이드' 오픈  
  
  
세상에 이런일이?…'진짜인가' 싶은 기사만 모았습니다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27세 배우 정채율 숨진 채 발견…SNS 마지막 글은  
"日아이돌 출신?"…심형탁, 18세 연하 예비신부 공개  
비,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 당황…"운동 더 하라고?"  
강아랑 웨딩사진 공개…서울대 수의사 남편도 관심  
한혜진 "10살 차+상사+사내 비밀 연애, 악조건 집합"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뉴시스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삼성전자, 두바이 초호화 호텔에 LED 디스플레이 대거 공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90973?sid=101

삼성전자는 두바이 고급 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열’의 스위트룸에 마이크로 LED ‘더 월’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지난달 문을 연 중동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리조트 ‘아틀란티스 더 로열’에 스마트 사이니지와 호텔 TV를 대거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공섬 팜 주메이라에 위치한 아틀란티스 더 로열은 호텔 3개동과 레지던스 3개동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틀란티스 더 로열의 최상위 객실인 로열 맨션에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기반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더 월(The Wall)’ 146형을 설치했다. 더 월은 모듈러 타입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 맞춤 연출이 가능하고 베젤이 없는 슬림한 디자인으로 몰입감을 강화했다. 최상위 객실 외 795개 호텔 전 객실과 레지던스에는 4K 화질의 호텔 TV를 설치했다. 호텔 로비와 스파·야외 수영장 등에도 공간 맞춤형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급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기자 프로필  
  
  
  
  
  
  
  
  
  
  
  
  
  
  
  
  
  
  
  
  
곽도영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중심, 주요 대기업 그룹의 오늘과 내일을 알려드립니다.  
  
  
  
  
‘D램 치킨게임’ 조기 종료… 가격 회복 기대감 커져  
  
  
中 6개월새 113조 투자… 日 8년간 56조, 韓 5년간 11조 지원  
  
  
  
  
  
  
  
동아일보의 구독 많은 기자  
  
  
동아일보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동아일보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동아일보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동아일보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응급환자들이 치료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히어로콘텐츠-표류]  
  
  
360° 영상으로 본 응급의료 현장[히어로콘텐츠-표류]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김기현-윤재옥 투톱', 총선 '위기 극복' 가능할까  
심상찮은 정권견제론중도층이 흔들리고 있다  
檢, 백현동 민간사업자정모 대표 불러 조사  
'10억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1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北, '개성공단 통근버스' 운행 정황또 포착…美위성에 찍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동아일보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외국계 증권사도 '동참'…삼성전자 목표주가 줄상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94822?sid=101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6%가량 쪼그라들며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지만, 국내 증권사에 이어 외국계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하고 있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HSBC, 미즈호 등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최근 보고서를 내고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상향했다.삼성전자는 7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7만4천원에서 7만7천원으로, HSBC는 7만5천원에서 8만8천원으로, 미즈호는 7만7천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올렸다.골드만삭스는 "메모리 실적 악화로 회사의 단기 수익은 좋지 않겠지만, 감산으로 인해 메모리 재고 수준이 2분기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삼성전자 전체 실적도 2분기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메모리 가격 환경이 유리해지면서 하반기에는 유의미한 이익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HSBC는 "삼성전자의 감산으로 메모리 가격이 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감산량은 D램과 낸드 모두에서 15∼20%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재고가 줄어들면서 D램과 낸드 가격 하락이 2분기부터 둔화할 것이고, 3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즈호는 "경쟁사들이 메모리 업황 침체기에 설비투자 확장이나 공장 이전 등에 대한 투자에서 제한된 선택지를 가진 데 반해 삼성전자는 이 기회에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씨티(8만7천원), JP모건(7만5천원), 노무라(7만1천원), 모건스탠리(7만원) 등은 목표주가를 유지했지만, 삼성전자의 감산으로 인해 업황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씨티는 "거시경제 불안에도 삼성전자는 하반기 메모리 시장 회복에 따라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메모리 시장은 3분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 다른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에 힘입어 이익이 반등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가 감산 행렬에 동참하면서 메모리 시장 재고가 2분기부터 감소하고, 3분기에는 가격이 안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의 매출도 2분기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네이버에서 《한국경제TV》와 기자를 구독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경TV LIVE》에서 방송에서 볼 수 없던 경제·증권정보를 모아 보세요.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마시면 화장실 직행"…스벅 새 음료, 뜻밖의 효과 ';곤혹';  
윷놀이 중 지인 몸에 불 질러…';2억 보험';에 새 국면  
';곰돌이 푸'; 얼굴에 강펀치…대만 공군 로고 ';불티'; 왜?  
';좀비마약'; 펜타닐 별칭은 ';중국소녀';…"이런 단어 들리면 접근 말라"  
';4억 할인'; 논란의 아파트, 9번째 줍줍도 일부 미달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한국경제TV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삼성전자, 두바이 특급호텔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설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75306?sid=101

'아틀란티스 더 로열' 최상위 객실 로열 맨션에 설치된 삼성전자 '더 월'[삼성전자 제공](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삼성전자는 지난달 문을 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리조트 '아틀란티스 더 로열'에 스마트 사이니지와 TV를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호텔 최상위 객실인 로열 맨션에는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LED 기술력을 집약한 초고화질 146형 디스플레이 '더 월'이 설치됐다. 더 월을 호텔 객실용 스크린으로 설치한 곳은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 중동 지역에서 최초다. 또 최상위 객실 외 호텔 전 객실 795개와 레지던스에 4K 화질 호텔 TV를, 로비·스파·수영장 등 공간별 특성에 맞춰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를 각각 설치했다. 안소니 린스데일 아틀란티스 두바이 상무는 "초고화질 마이크로 LED 기반의 더 월을 비롯한 삼성전자의 우수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투숙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희 삼성전자 SGE 법인장은 "앞으로도 호텔이나 복합 리조트에 독보적 기술력의 LED 사이니지와 각종 운영 솔루션을 공급해 미래형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틀란티스 더 로열' 로비에 설치된 삼성전자 스마트 LED 사이니지[삼성전자 제공] rice@yna.co.kr  
  
  
  
  
김아람(rice@yna.co.kr)  
  
  
  
  
기자 프로필  
  
  
  
  
  
  
  
  
  
  
  
  
  
  
  
  
  
  
  
김아람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반도체 쇼크' 삼성전자의 굴욕…LG전자·엔솔에 영업익 밀려  
  
  
반도체 재고압박에 전략수정…삼성전자 "메모리 생산량 하향"(종합)  
  
  
  
  
  
  
  
연합뉴스의 구독 많은 기자  
  
  
연합뉴스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연합뉴스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연합뉴스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연합뉴스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생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앱 다운] 빠르고 정확한 연합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제보는 연합뉴스 okjebo 톡!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 5시간 갇힌 30대…6m 떨어진 휴대전화가 구해줬다  
 파주시가 위탁한 수영장에서 황제강습 받은 김경일 파주시장  
 20대 여자친구 살해한 남성, 모텔서 의식 잃은 채 발견  
 "압사사고 터질 거 같아요"…위험천만한 김포골드라인  
 모델 출신 배우 정채율 사망…"연기에 진심이었던 배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연합뉴스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단독] 불황에도 R&D 인재 확보…삼성전자, 임대현 마스터 영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78223?sid=101

이달 '메모리 I/O팀'에서 업무 시작미국 IBM, 글로벌 파운드리 등에서 근무다음 호황 대비해 R&D 투자에 집중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침체기에도 외부 반도체 전문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불황 뒤 오는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첨단 기술을 준비하는 모습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메모리 사업부에 임대현 마스터를 영입했다. 마스터 직급은 삼성전자가 기술 인재 중용을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연구개발(R&D) 직군에서 각 분야 전문가를 임원급으로 대우하면서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임 마스터는 이달부터 메모리사업부 ‘D램 I/O팀’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회로 설계 전문가다. 특히 D램이 외부 칩, 정보기술(IT) 기기와 정보 공유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입출구(I/O) 회로 설계 고도화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주목하는 신규 D램 규격인 DDR5, 차세대 DDR6와도 큰 관련이 있다.임 마스터는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08년부터 약 7년간 미국 유력 정보기술(IT) 회사 IBM에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를 설계했다. 또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 노키아 등을 거치며 엔지니어로 활동했다.임 마스터 영입은 메모리 침체로 감산까지 단행한 삼성전자가 다음 호황을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통상 메모리 시장에서는 수요가 저점을 찍고 나면 공급 회복세가 빠르다. 이때 칩 제조사가 원가 경쟁력과 좋은 성능을 겸비한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시장 리더십을 잡기가 수월해진다.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영업이익 감소에도 R&D 비용을 늘렸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하반기 총 R&D 비용은 12조 7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비용인 11조 6000억 원보다 9.9% 증가했다.삼성전자는 한편 파운드리·패키징 분야의 기술 인재 확보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인텔 극자외선(EUV) 전문가 이상훈 부사장을 영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해령 기자(hr@sedaily.com)  
  
  
  
  
기자 프로필  
  
  
  
  
  
  
  
  
  
  
  
  
  
  
  
  
  
  
  
  
강해령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강해령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감산'…3가지 핵심 포인트는? [biz-플러스]  
  
  
희비 엇갈린 전자 맞수…1등 처음으로 꺾은 2등  
  
  
  
  
  
  
  
서울경제의 구독 많은 기자  
  
  
서울경제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서울경제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서울경제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서울경제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서울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대한민국 경제역사의 기록 [서경 e-Paper]  
  
  
'1일 1재테크' 놀라운 돈의 발견 [마켓시그널]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학폭했잖아" 폭로하자 소주병으로 동창 얼굴 내리친 뮤지컬 배우, 누구?  
야간 훈련 받는 군인에 엽총 쏜 사냥꾼···"야생동물인 줄"  
"예약, 하늘의 별따기라더니"···캠핑장 싹쓸이 대행 업체에 '공분'  
"불닭볶음면·삼양라면 T셔츠로 입어요"···K푸드 즐기는 일본 [똑똑!스마슈머]  
"볼에 뽀뽀해봐"···술 취해 초등생들 추행한 제주 공무원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서울경제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청소기+패션쇼=?…삼성전자, '세상에 없던 초강력 청소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95716?sid=101

기사내용 요약11일 소셜미디어·TV 등에 캠페인 영상 공개강력 흡입력·AI 모드 등 청소기 신제품 기능 강조  
  
  
  
[서울=뉴시스]삼성전자가 11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와 TV·옥외 광고에 공개되는 '더 제트 워크(The JET Walk)' 캠페인 영상을 통해 '세상에 없던 초강력 청소 쇼'라는 이색 캠페인으로 2023년형 청소기 신제품 '비스포크 제트 AI'의 출시를 알린다. (사진 = 업체 제공) 2023.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삼성전자가 '세상에 없던 초강력 청소 쇼'라는 이색 캠페인으로 2023년형 청소기 신제품 '비스포크 제트 AI'의 출시를 알린다.11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와 TV·옥외 광고에 공개되는 '더 제트 워크(The JET Walk)' 캠페인 영상은 런웨이를 배경으로 최대 280W(와트) 흡입력의 강력한 성능, AI 모드 등 2023년형 비스포크 제트 AI의 새로운 기능을 강조한다.영상은 ▲더 클린 워크(THE CLEAN WALK) ▲더 AI 워크(THE AI WALK) ▲더 지그재그 워크(THE ZIGZAG WALK) 3개 스테이지로 구성됐다.더 클린 워크에서는 삼성만의 특허 출원한 기술로 강력해진 최대 280W의 흡입력·397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런웨이 바닥의 금빛 부스러기들을 강력 흡입한다.  
  
  
  
[서울=뉴시스]삼성전자가 11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와 TV·옥외 광고에 공개되는 '더 제트 워크(The JET Walk)' 캠페인 영상을 통해 '세상에 없던 초강력 청소 쇼'라는 이색 캠페인으로 2023년형 청소기 신제품 '비스포크 제트 AI'의 출시를 알린다. (사진 = 업체 제공) 2023.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더 AI 워크에서는 카페트나 마루·매트 등 집안의 청소 환경을 감지해 흡입력을 최적화 해주는 AI 모드를 선보인다. 비스포크 제트 AI는 국내 무선 스틱 청소기 최초로 한국표준협회에서 AI+ 인증을 받았다.로봇 청소기를 스틱형 무선 청소기와 함께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더 지그재그 워크에는 '비스포크 제트 봇 AI'가 등장한다. 비스포크 제트 봇 AI는 사물인식·3D·라이다 센서로 집 구조와 사물 종류까지 인식하는 자율주행으로 런웨이 곳곳에 떨어진 장애물들을 감지해 피해간다.  
  
  
  
[서울=뉴시스]삼성전자가 11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와 TV·옥외 광고에 공개되는 '더 제트 워크(The JET Walk)' 캠페인 영상을 통해 '세상에 없던 초강력 청소 쇼'라는 이색 캠페인으로 2023년형 청소기 신제품 '비스포크 제트 AI'의 출시를 알린다. (사진 = 업체 제공) 2023.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삼성전자는 이번 캠페인에 지속가능한 일상을 위한 노력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해양 폐기물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컷더트래쉬(Cut The Trash)'와 협업해 모델의 의상과 소품은 물론 재활용 페트병들로 만든 샹들리에를 런웨이 무대에 설치하는 등 캠페인 영상 곳곳에서 업사이클링 아이템들을 확인할 수 있다.비스포크 제트 AI의 청정스테이션은 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그릴 필터에 적용했으며, AI 모드는 바닥 환경에 따라 최적의 흡입력으로 청소해 강력 모드 대비 AI 모드 사용시 배터리를 약 25% 절약한다.이밖에도 비스포크 제트 AI는 ▲일직선 구조와 에어펄스 기술에 회전 싸이클론 기술을 적용해 말려있는 긴 머리카락까지 말끔하게 비워주는 '청정스테이션+' ▲스스로 청소기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자가진단' 등을 지원한다．  
  
  
  
  
이현주 기자(lovelypsyche@newsis.com)  
  
  
  
  
기자 프로필  
  
  
  
  
  
  
  
  
  
  
  
  
  
  
  
  
  
  
  
  
이현주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구내식당에서 줄선 회장님…MZ세대가 선호하는 리더는?  
  
  
지주회사 직원 평균 연봉이 2억2000만원…착시효과 왜?  
  
  
  
  
  
  
  
뉴시스의 구독 많은 기자  
  
  
뉴시스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뉴시스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뉴시스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뉴시스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뉴시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온라인 콘텐츠·크리에이터 소식…'튜브가이드' 오픈  
  
  
세상에 이런일이?…'진짜인가' 싶은 기사만 모았습니다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던, 피 묻은 목걸이…컴백 앞두고 파격 비주얼  
심형탁, 18세 연하 日 예비신부 공개…아이돌급 외모  
이선희·이서진, 이승기 결혼식 안 왔다  
윤문식 "폐암 3기 시한부 7개월 진단"…알고보니  
박지성·김민지 아들 처음 공개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뉴시스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삼성전자, 두바이 특급 호텔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설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92820?sid=105

삼성전자, 두바이 특급 호텔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설치.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중동 두바이의 특급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 로열(Atlantis The Royal)’에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아틀란티스 더 로열의 최상위 객실인 ‘로열 맨션(Royal Mansion)’에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인 ‘더 월’을 설치했다. 146인치의 크기의 더 월은 4K(3840x2160) 해상도를 지원한다. 중동 지역에서 더 월을 호텔 객실용 스크린으로 설치한 호텔은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 처음이다. 더 월은 모듈러 타입의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형태로 설치 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다. 베젤이 없는 슬림한 디자인으로 높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삼성전자는 최상위 객실 외 795개 호텔 전 객실과 레지던스에는 4K 화질의 호텔 TV를 설치했다.삼성전자는 호텔 로비·스파·야외 수영장 등에는 스마트 사이니지를 설치했다. 호텔 로비의 3개의 대형 수조에 가로 6m·세로 8.5m 크기의 사이니지가 적용됐다. 이 수조와 벽면 사이에 사이니지를 ‘행잉(Hanging)’ 타입으로 설치해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화면을 제공한다. 스파와 체육시설에는 공간의 크기와 형태에 맞춰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 사이니지를 설치했다. 이 제품은 가로와 세로, 비정형 디자인 등 원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어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야외 수영장에는 태양광 아래에서도 높은 시인성을 보여주는 삼성 스마트 아웃도어 사이니지가 설치됐다. 이 제품은 IP65 규격의 방진∙방수 기능과 최소 4000니트(nit) 이상의 밝기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레스토랑·회의실 등 주요 시설에 공간 특성에 적합한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이두희 삼성전자 SGE 법인장(상무)은 “중동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아틀란티스 더 로열 호텔에 마이크로 LED 기술력의 집약체인 더월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니지 솔루션으로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호텔이나 복합 리조트에 독보적 기술력의 LED 사이니지와 각종 운영 솔루션을 공급해 미래형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 mansay@chosunbiz.com  
  
  
  
  
기자 프로필  
  
  
  
  
  
  
  
  
  
  
  
  
  
  
  
  
  
  
  
  
김민국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안녕하세요. 김민국 기자입니다. 바르게 쓰겠습니다.  
  
  
  
  
차세대 OLED 기술 얻은 中 HKC… “삼성·LG에 위협”vs”실제 양산까진 쉽지 않을듯”  
  
  
유럽서 ‘불소화 온실가스’ 퇴출… 삼성·LG, 히트펌프 사업 부담  
  
  
  
  
  
  
  
조선비즈의 구독 많은 기자  
  
  
조선비즈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조선비즈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조선비즈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조선비즈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조선비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  
  
  
신차 정보와 중고차 시세… 'CAR 톡'에서 보세요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올라도 문제" 17일 에코프로 종가에 주목하는 이유  
"이제 현금은 어디서 뽑지?"… 은행 365일 코너가 사라진다  
"세계 핵융합 선두인 한국이 최적"… 주도권 잡게 될 시장  
'아버지가 뿌린 씨앗' 이재용·구광모, 車 전장서 맞붙는다  
대통령과 美는 안가도… 신동빈·정용진 한달음에 달려간 곳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조선비즈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 포르투갈 총리 접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01832?sid=101

삼성전자는 DX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이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한 중인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만났다고 이날 전했다.     
  
  
  
 성전자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왼쪽)이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만나 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제공   한 부회장은 코스타 총리와 포르투갈 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1982년 포르투갈에 최초의 해외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등 포르투갈은 삼성전자에 있어 매우 뜻깊은 국가"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포르투갈에서 사회공헌활동 교육 프로그램인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통해 리스본 노바대학교 학생들과 AI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기자 프로필  
  
  
  
  
  
  
  
  
  
  
  
  
  
  
  
  
  
  
  
  
현화영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숨쉬는 한 희망은 있다  
  
  
  
  
“가장 안쪽 자리에” 유아인 이태원 클럽 목격담…경찰은 ‘졸피뎀 과다 처방’ 혐의 추가  
  
  
취소 문의 거절에 앙심 품었나? 숙소서 닷새간 물 120t 쓰고 떠난 中 커플 관광객  
  
  
  
  
  
  
  
세계일보의 구독 많은 기자  
  
  
세계일보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세계일보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세계일보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세계일보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세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 순천은 전라"… '길복순' 두고 일베 논란  
황승언, 노브라 수영복 패션 "남자들은 다 벗는데"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엄정화 "임원희랑 예전에 사귀었다" 깜짝 고백  
캔 커피 마약 나온 울산…콜라 마약까지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세계일보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이마트, 생필품 최대 47% 할인…삼성전자 협업 청소기도 선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31588?sid=101

이마트 '더 리미티드' 행사 제품 사진. 사진=이마트 제공이마트는 오는 13일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연중 프로젝트 '더 리미티드'의 2차 상품을 선보인다. 더 리미티드는 분기별로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필수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프로젝트다.2차 상품으로는 훈제목심, 한우불고기, 참치캔, 리챔, 국산 갈치살, 요거트, 샴푸·린스 등이 마련됐고, 1차 때보다 상품 품목을 25% 늘렸다. 특히 이마트와 삼성전자가 협업한 '더 리미티드 일렉트로맨&삼성 비스포크제트 청소기'는 배터리 수량을 2개에서 1개로 줄여 기존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더 리미티드 훈제 목심은 한 달 판매량의 10배 물량을 매입해 약 20% 할인 판매한다. 더 리미티드 캐슈너트와 한우 불고기도 각각 47%, 45% 저렴하게 선보인다. 황운기 이마트 상품본부장은 "더 리미티드 상품을 3분기에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기자 프로필  
  
  
  
  
  
  
  
  
  
  
  
  
  
  
  
  
  
  
  
  
안혜원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생활경제 시장을 취재합니다. anhw@hankyung.com  
  
  
  
  
"진짜 맛있다" 유재석·이정재도 감탄…1500억 대박 난 제품  
  
  
'커플 팔찌'가 2000만원…"또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돼요"  
  
  
  
  
  
  
  
한국경제의 구독 많은 기자  
  
  
한국경제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한국경제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한국경제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한국경제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돈 준다"…국민앱에 300억 몰렸다  
'26억'이던 해운대 아파트, 7년 만에…'이례적'  
병원 가면 늘 마주치는 이 장비, 설마 했더니  
"하이 빅스비, 살려줘" 성공…30대 '기적생환'  
"렌즈 끼고 낮잠 잤다가 눈 실명"…몰랐던 사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한국경제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접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43262?sid=101

상호 협력방안 논의한 부회장 “삼성전자, 포르투갈에 최초 해외 생산법인 설립"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 부회장이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을 찾은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를 만나 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삼성전자][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 부회장이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을 찾은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를 만나 포르투갈 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1982년 포르투갈에 최초의 해외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등 포르투갈은 삼성전자에 있어 매우 뜻깊은 국가”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포르투갈에서 사회공헌활동 교육 프로그램인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통해 리스본 노바대학교 학생들과 AI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이날 대한상의는 주한포르투갈대사관, 포르투갈무역투자청(AICEP)과 공동으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병희(leoybh@edaily.co.kr)  
  
  
  
  
기자 프로필  
  
  
  
  
  
  
  
  
  
  
  
  
  
  
  
  
  
  
  
  
이병희 기자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닫기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가야할 길은 가겠습니다.  
  
  
  
  
“반도체, IT 버블 붕괴·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악화”  
  
  
배터리 '나홀로 적자' SK온…최재원 부회장 비전은?  
  
  
  
  
  
  
  
이코노미스트의 구독 많은 기자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이코노미스트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이코노미스트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이코노미스트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이코노미스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네이버에서 이코노미스트를 구독해주세요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산불 피해'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주가 과열, 팔아라' 리포트에…잘 나가던 에코프로 주가 뚝[증시이슈]  
美 페어 테라퓨틱스, 나스닥 상장폐지 통보…국내 시장 여파는  
[얼마예요] '남자들 치맛바람'이 대세?…박보검·투바투 연준 '치마+핫팬츠룩 '  
이더리움, 매도 물량 쏟아질까…'샤펠라' D-1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이코노미스트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삼성전자 감산 결정 희소식...마이크론 주가 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71876?sid=1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반도체 감산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업계에 희소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 현지시간 10일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이 반도체 업계 전반의 공급 과잉을 잠재적으로 완화해 경쟁 업체의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삼성전자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7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면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며 사실상 감산을 공식 인정했습니다.이후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마이크론 주가는 10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8.04%나 뛰어올랐습니다.미국 종합금융회사 스티펄의 브라이언 친 애널리스트는 삼성의 발표에 대해 "수십 년 만의 가장 큰 메모리 공급 불균형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김선희(sunny@ytn.co.kr)  
  
  
  
  
기자 프로필  
  
  
  
  
  
  
  
  
  
  
  
  
  
  
  
  
  
  
  
김선희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이집트, 러에 은밀히 로켓 공급 계획" 美유출문서로 확인  
  
  
中 타이완 포위는 실전훈련?...군용기 71대 동원  
  
  
  
  
  
  
  
YTN의 구독 많은 기자  
  
  
YTN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YTN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YTN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YTN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YT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년 만에 강력한 '봄 강풍'…어느 정도길래?  
전광훈 "내 통제받아라"…與, '극우 손절' 나서나  
술 취해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검사…법무부 "임용 취소 예정"  
김태효 "한미, 공개된 정보 상당수 위조됐다고 평가"  
"정자교, 7년 전부터 가라앉았다"…안전점검 의구심 확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YTN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삼성전자, 올해 8개분야 특허 272건 무료 기술이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04103?sid=101

/연합뉴스삼성전자가 올해 모바일기기, 반도체소자,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등 총 8개 기술 분야에서 272건의 특허를 공개한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상대로 오는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이다.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한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02개 기업에 959건의 특허를 무료로 이전했다.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오디오 신호 처리 기술을 이전받은 ㈜벨레는 삼성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가구와 스피커를 결합한 블루투스 테이블 스피커를 개발했다.벨레는 해당 상품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해 2020년 대비 지난해 매출은 50%, 고용은 80%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기록했다.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올해 중 한국전력, LS일렉트릭,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SK그룹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술나눔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유혜림 기자(cham@chosun.com)  
  
  
  
  
기자 프로필  
  
  
  
  
  
  
  
  
  
  
  
  
  
  
  
  
  
  
  
  
유혜림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TV조선 산업부 기자  
  
  
  
  
삼성전자, 1분기 어닝쇼크…결국 메모리 감산 인정  
  
  
알뜰폰, '1년간 0원' 요금제 등장…인하 경쟁 불붙나?  
  
  
  
  
  
  
  
TV조선의 구독 많은 기자  
  
  
TV조선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TV조선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TV조선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TV조선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TV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네이버 메인에서 TV조선 구독하기  
  
  
더 많은 TV조선 뉴스 보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국빈방문 앞두고 불거진 감청의혹…美 "법무부 조사 중"  
이낙연계, 이재명 '직격'…"개딸 팬덤정치 대단히 위험, 대장동은 범죄"  
경찰, '대통령 권총 테러 예고' 게시자 추적  
'타워크레인 월례비' 60명 수사의뢰…"최대 2억 5천만원"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유력…세수 부족 메우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TV조선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삼성전자, 취약계층 1만가구에 무풍 에어컨 지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93418?sid=101

기사내용 요약냉방 지원기기 보급 사업자로 선정1만 3640가구에 에어컨 순차 공급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모델이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삼성스토어 청담점에서 냉방 지원기기 보급 사업자로 선정돼 공급하게 되는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2023.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재단이 추진하는 냉방 지원기기 보급 사업자로 선정됐다.삼성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참여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가구에 냉방기기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 제품을 1만3640가구에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제품 공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수 및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는 무풍 모드 사용시 최대 냉방 대비 최대 77%까지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어 전기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한여름 폭염에도 '패스트 쿨링' 기능으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춰줄 수 있고 '와이드 무풍 냉방' 기술은 장시간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동효정 기자(vivid@newsis.com)  
  
  
  
  
기자 프로필  
  
  
  
  
  
  
  
  
  
  
  
  
  
  
  
  
  
  
  
  
동효정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안녕하세요, 뉴시스 동효정 기자입니다.  
  
  
  
  
"35분 만에 신발 관리 끝"…삼성, 신형 '슈드레서' 출시  
  
  
삼성전자, 14년만에 최악의 실적...SK하이닉스는?  
  
  
  
  
  
  
  
뉴시스의 구독 많은 기자  
  
  
뉴시스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뉴시스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뉴시스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뉴시스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뉴시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온라인 콘텐츠·크리에이터 소식…'튜브가이드' 오픈  
  
  
세상에 이런일이?…'진짜인가' 싶은 기사만 모았습니다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가수 유나킴, 엄마 된다…"벌써 임신 27주"  
'이유비 힌트 줬다?'…이승기♥이다인 임신설 '가짜'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니…걸으며 대변 흘리고 간 남성  
윤문식 "폐암 3기 시한부 7개월…알고보니 오진"  
김태희 본인도 인정한 셀카…"만족스러워 올려요"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뉴시스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청소기 밀며 런웨이를?…삼성전자 광고에 '반응 폭발' [영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31412?sid=101

갤럭시S23 스마트폰도 '깨알 홍보'  
  
  
  
사진=삼성전자 유튜브 캡처삼성전자가 2023년형 청소기 신제품 '비스포크 제트 AI' 출시를 위해 만든 광고 영상이 화제다.11일 삼성전자는 '세상에 없던 초강력 청소 쇼'라는 주제로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TV·옥외 광고 등에 'The JET Walk(더 제트 워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삼성전자 공식 유튜브런웨이를 배경으로 최대 280와트(W) 강력한 흡입력, '인공지능(AI) 모드' 등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다. 영상은 △THE CLEAN WALK(더 클린 워크) △THE AI WALK(더 AI 워크) △THE ZIGZAG WALK(더 지그재그 워크)의 3개 스테이지로 구성됐다.더 클린 워크에서는 삼성만의 특허 출원한 기술로 강력해진 최대 280와트(W) 수준 흡입력·397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런웨이 바닥의 금빛 부스러기들을 흡입한다.더 AI 워크에서는 카페트나 마루·매트 등 집안의 청소 환경을 감지해 흡입력을 최적화 해주는 'AI 모드'를 지원한다. 비스포크 제트 AI는 국내 무선 스틱 청소기 최초로 한국표준협회에서 AI+ 인증을 받았다.로봇 청소기를 스틱형 무선 청소기와 함께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한 더 지그재그 워크에서는 '비스포크 제트 봇 AI'가 등장한다. 비스포크 제트 봇 AI는 사물인식·3D·라이다 센서로 집 구조와 사물 종류까지 인식하는 자율주행으로 런웨이 곳곳에 떨어진 장애물들을 감지해 피해간다.  
  
  
  
사진=삼성전자 유튜브 캡처영상 속에는 관람객이 갤럭시S23시리즈 스마트폰을 들고 런웨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역시 '깨알 홍보'다.해당 영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이디어가 대박" "(광고)깔끔하게 잘 뽑았다" "빨아들이는 장면이 속 시원하다" "너무 재미있다" 같은 호평을 내놨다.   
  
  
  
사진=삼성전자 트위터앞서 만우절인 지난 1일 삼성전자는 마케팅 차원에서 갤럭시냥즈, 갤럭시S23 바우바우 에디션, 명태드레서 등 이색 상품 출시를 알리는 등 '만우절 마케팅'을 한 바 있다. 눈길을 끄는 영상 콘텐츠로 젊은 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다. '더 제트 워크' 영상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색 마케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김성욱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소비자들에게 최대 280와트 세계 최고 흡입력과 AI로 바닥 환경을 감지해 최적의 흡입력을 구현하는 비스포크 제트 신제품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가장 강력하고 똑똑한 제트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삼성전자 유튜브 캡처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기자 프로필  
  
  
  
  
  
  
  
  
  
  
  
  
  
  
  
  
  
  
  
  
조아라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IT업계를 취재합니다. 업계 이슈를 다루는 [조아라의 IT's fun], 중국 트렌드를 담은 [조아라의 소프트 차이나]를 연재 중입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미국 뒤흔든 앱의 정체 [조아라의 IT's fun]  
  
  
'카톡 단톡방 강제 초대' 응답자 70% "곧바로 퇴장할 것"  
  
  
  
  
  
  
  
한국경제의 구독 많은 기자  
  
  
한국경제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한국경제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한국경제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한국경제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박서준 내세우더니…일본인으로 빈자리 채운다  
"10만전자도 가능"…증권사의 긍정적 시나리오  
청소기 밀며 런웨이?…삼성 광고에 '반응 폭발'  
"못 말리는 한국"…콧대 높은 샤넬도 파격 결단  
"하루하루 피 마른다…돈 몽땅 날릴 판" 공포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한국경제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친절한 경제] 25년 만에 첫 반도체 공식 감산…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49833?sid=101

<앵커>친절한 경제 오늘(12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여기 보니까 오늘 2가지 품목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한 걸로 보이는데, 이 두 품목의 위상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품목들입니까?<기자>그렇습니다. 지난해 초 석 달 동안에는 우리 돈으로 무려 45조 원을 벌어들였던 첫 번째 품목 올해 들어서는 40% 급감했고요.지난해에는 첫 번째 품목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았던 두 번째 품목은 올해 들어서는 덩치가 좀 엇비슷해졌죠.바로 우리 수출의 2가지 주력품목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반도체는 지난해 3월이 역대 최고 실적, 자동차는 올해 3월이 그랬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립니다.여기에 자동차 부품 수출까지 합치면 자동차 관련 수출이 반도체를 앞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동차의 반도체 역전 2017년 이후로 처음입니다.자동차 수출이 2020년까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감소할 동안 반도체는 격차를 크게 벌려왔습니다.4월 들어서 최근 열흘 동안의 수출입 현황을 어제 관세청이 발표했는데요.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지만 우리 자동차 수출은 기록적인 호조, 반도체는 기록적인 부진을 보이면서 자동차 관련 수출이 반도체를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는 겁니다.자동차는 2021년부터 눈에 띄는 수출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특히 전기차나 SUV 같은 비교적 비싼 차,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차들이 해외에서 잘 팔리면서 이런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앵커>자동차가 반도체의 빈자리를 채워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동안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했던 비중이 굉장히 컸잖아요. 지금 수출 부진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기자>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이 바닥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수요가 공급보다 좀 더 커지면서 반도체 경기가 호전될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우리가 반도체 경기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경기를 가리킵니다.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와 휴대폰, 서버들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 부품인데요. 지금 쌓여있는 재고에 비해서 찾는 데가 많지 않아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반도체는 석유랑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석유가 펑펑 나는 중동의 몇몇 나라들이 유가가 좀 떨어지면 모여서 원유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다시 올리죠.메모리 반도체도 세계적으로 제대로 생산하는 회사가 몇 곳 없습니다.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부진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몇 안 되는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줄여서 재고를 줄이고 가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지난주까지 삼성전자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은 감산으로 지금 상황에 대응해 왔습니다.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감산을 공식적으로 밝혔죠.매출도 매출이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96%나 줄어들면서, 힘들어도 "감산은 안 한다"던 기조를 바꾼 겁니다.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까지 감산에 나섰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그래도 공급보다 수요가 커져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정부와 시장이 함께 갖고 있습니다.<앵커>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도 이제 감산에 동참하기로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산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기자>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에 나선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사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른바 '치킨게임'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강자가 다른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감산할 때 버티고 투자를 계속해서 경쟁자를 밀어내고 부진 사이클이 끝나면 그렇게 해서 버틴 회사가 더욱 강해져 있고 이런 시장입니다.삼성전자는 감산과는 별개로 투자는 계속한다고 밝혔지만요.업계 1위 삼성전자도 못 버티고, 결국 25년 만의 감산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요즘 좋지 않다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그래서 3분기부터는 반도체 시장 조금씩 회복세일 거라는 예상은 대체로 공통적이지만, 그렇다면 그 회복의 빠르기는 어떨까 그건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는 지금으로선 미지수입니다.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부진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좀 더 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기자 프로필  
  
  
  
  
  
  
  
  
  
  
  
  
  
  
  
  
  
  
  
  
권애리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매일 조금씩 더 배워갈수록, 부족한 그릇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지만 그 사실에 짓눌리지도 않는, 성장하는 직업인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친절한 경제] 꼿꼿한 허리는 기본!…'비율'까지 좋아지는 한국 노인들  
  
  
[친절한 경제] 대형마트, 이제 공휴일에 열어도 되지 않나요?  
  
  
  
  
  
  
  
SBS의 구독 많은 기자  
  
  
SBS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SBS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SBS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SBS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백종원이 피해자" 한국 누리꾼 분노…현지 야시장 뭔 일  
"작품 같이 하자 했는데"…정채율 숨지기 전 남긴 메시지  
이승기♥이다인, 결혼식 뒤 포착된 이 나라…목격담 확산  
병원 압수수색하던 경찰 깜짝…유아인 새로운 마약 정황  
"음주운전 3번째 적발, 이제 캠핑카 못 즐기게 됐네요ㅠ"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연재  
친절한 경제  
구독 명  
  
  
  
구독  
  
  
구독중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연재는 언론사 편집판과오피니언홈의 구독연재 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더보기  
  
  
  
  
  
25년 만에 첫 반도체 공식 감산…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대형마트, 이제 공휴일에 열어도 되지 않나요?  
  
  
  
  
'0.5인분' 확산 이유 따져보니…난방비 상승 영향이 여기까지?  
  
  
  
  
  
  
  
  
SBS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코이카, 민간 기업 ESG와 ODA 결합…삼성전자 사례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74331?sid=100

[the300]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민간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활동과 연계해 개발도상국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한다.코이카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국내외 ESG/혼합금융 동향 시사점 및 적용'을 부제로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및 혼합금융 세미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세미나에서 소개되는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와 '혼합금융사업'은 기업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코이카가 2022년에 신설한 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번 행사에서 코이카는 ODA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 SK임업,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임팩트스퀘어 등 기존 사업 참여기업의 사례를 공유한다. 설명회에 이어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및 혼합금융사업에 특화해 소규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현재 게시된 코이카 홈페이지 사전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는 KOICA 민관협력 지원센터로 하면 된다.코이카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 국가에서 교육, 농촌개발,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150개의 기업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기자 프로필  
  
  
  
  
  
  
  
  
  
  
  
  
  
  
  
  
  
  
  
김지훈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입니다. 기사 제보: lhshy@mt.co.kr 입니다. 감사합니다.  
  
  
  
  
[단독]"너희 세대에 꼭" 日 '다케시마맘', 국립전시관이 영상 띄웠다  
  
  
평양시내 달리는 현대차 통근버스…北, 항의에도 아랑곳  
  
  
  
  
  
  
  
머니투데이의 구독 많은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머니투데이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머니투데이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머니투데이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머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MT 글로벌 영어캠프 지금 신청하세요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탁재훈 "노래 안 하는데 돈은 반반"…신정환 "못 참아"  
'후크' 권진영, 이승기 결혼식 대신 제주도…강렬한 눈빛  
故 현미, 20억 사기·강도로 생활고…"골절에도 수술 못받아"  
빽가, 애인보다 신지?…"여친 생기든 말든 챙기게 되더라"  
'예스맨' 김병철, 이상민은 거절…"500만원 못 빌려준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머니투데이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K디지털, Up대한민국]삼성전자, 6G 핵심기술 시장 글로벌 선도 자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90743?sid=105

서울 서초구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 임직원이 기술개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삼성전자는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글로벌 선도를 위해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최성현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최성현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부사장)은 “6G 개발은 한국의 ICT 인프라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는 6G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확보했다. 2020년 7월 '6G 백서'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 비전을 제시했다. 2022년에는 '6G 주파수 백서'를 공개했다. 글로벌 시장에 테라헤르츠파 활용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삼성리서치는 초고집적 초고차원 다중안테나 기술, 듀플렉스(Duplex) 혁신 기술, 저전력·고효율 신호처리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통신 기술,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통신·컴퓨팅·AI 간 융합과 확장성, 유연한 자원 운용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구조 등도 주요한 연구 주제다.  
  
  
  
서울 서초구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 임직원이 기술개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최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6G 핵심 특징과 요구 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R에서 진행 중인 6G 비전 그룹의 선행 표준화 작업에도 선도적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며 “센터 소속 최형진 연구원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자격으로 6G 비전 그룹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삼성전자는 6G가 5G 대비 최대 속도 5~50배 이상, 무선 지연시간이 10배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AI를 시스템 설계 요소에 내재화, 단말부터 서버까지 통신에 관여하는 모든 객체를 고려한 시스템 최적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전력 소모가 낮고 신호처리 효율성이 높은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 요소는 대규모 사물인터넷(IoT), 초고화질 영상,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드론,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능케 할 전망이다.최 부사장은 한국이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에 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특정 연구 분야 쏠림을 극복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우수 인재가 자발적으로 유입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재, 부품, 장비 등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기업들이 협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성 jisung@etnews.com  
  
  
  
  
기자 프로필  
  
  
  
  
  
  
  
  
  
  
  
  
  
  
  
  
  
  
  
박지성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LG유플러스, 5G요금제 23종 출시···청년 데이터 확 늘리고, 구간 세분화  
  
  
[뉴스 줌인] LG유플러스 알뜰폰 5G 도매제공 10개로 확대...선택권·경쟁촉진 기대  
  
  
  
  
  
  
  
전자신문의 구독 많은 기자  
  
  
전자신문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전자신문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전자신문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전자신문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전자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챗GPT 등 활용한 서비스 사례 분석 세미나, 4월 19일 개최  
  
  
네이버 홈에서 [전자신문] 구독하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BMW "한국을 수소전기차 테스트베드로"  
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전기차 24兆 투자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구글플레이, 게임 앱 독점"  
대구시, 옛 경북도청 후적지, '도심융합특구'로 조성  
눈처럼 뒤덮은 회색 화산재…러시아 화산 또 분화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전자신문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런웨이에서 청소기 민 모델들..삼성전자의 이색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94954?sid=101

삼성전자가 2023년형 청소기 신제품 '비스포크 제트 인공지능(AI)' 출시에 맞춰 실시한 '더 제트 워크' 캠페인 영상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2023년형 청소기 신제품 '비스포크 제트 인공지능(AI)' 출시에 맞춰 '세상에 없던 초강력 청소 쇼'라는 이색 캠페인을 실시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과 TV·옥외 광고에 공개되는 '더 제트 워크' 캠페인 영상은 런웨이를 배경으로 2023년형 비스포크 제트 AI의 새로운 기능을 강조한다. '더 클린 워크' 스테이지에서는 삼성만의 특허 출원한 기술로 강력해진 최대 280W의 흡입력·397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런웨이 바닥의 금빛 부스러기들을 강력 흡입한다. '디 에이아이 워크'에서는 카페트나 마루·매트 등 집안의 청소 환경을 감지해 흡입력을 최적화 해주는 'AI 모드'를 선보인다. 비스포크 제트 AI는 국내 무선 스틱 청소기 최초로 한국표준협회에서 AI 플러스 인증을 받았다. '더 지그재그 워크'에 등장하는 비스포크 제트 봇 AI는 사물인식·3D·라이다 센서로 집 구조와 사물 종류까지 인식하는 자율주행으로 런웨이 곳곳에 떨어진 장애물들을 감지해 피해간다. 삼성전자는 이번 캠페인에 지속가능한 일상을 위한 노력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 해양 폐기물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컷더트래쉬'와 협업해 모델의 의상과 소품은 물론 재활용 페트병들로 만든 샹들리에를 런웨이 무대에 설치했다. 비스포크 제트 AI의 청정스테이션은 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그릴 필터에 적용했다. AI 모드는 강력 모드 대비 AI 모드 사용 시 배터리를 약 25% 절약한다. 삼성전자 김성욱 한국총괄 부사장은 “소비자들에게 최대 280와트 세계 최고 흡입력과 AI로 바닥 환경을 감지해 최적의 흡입력을 구현하는 비스포크 제트 신제품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가장 강력하고 똑똑한 제트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무선청소기 #런웨이 #비스포크   
  
  
  
  
장민권 기자 (mkchang@fnnews.com)  
  
  
  
  
기자 프로필  
  
  
  
  
  
  
  
  
  
  
  
  
  
  
  
  
  
  
  
  
장민권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기자입니다  
  
  
  
  
D램 1위의 감산… "6월 메모리 업황 반등세 돌아설 것" 기대 [반도체 위기에 삼성도 감산]  
  
  
"2시간 만에 새 신발 됐네" 삼성 '슈드레서' 최신 기능 보니  
  
  
  
  
  
  
  
파이낸셜뉴스의 구독 많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이슈를 보다 [fn파인더]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민, 미코 출신 12세 연하 여성과 새벽 4시에 만나서..반전  
박수홍 아내는 박수홍 친구와 사귀다가 친구가 죽자..무슨 일?  
배와 가슴에 상처 공개한 유명 여가수.. 남편 "내가.."  
BTS와 1대 1로 붙어도 이기는 임영웅, 몸값이 무려..  
집 담보 대출 받아 재산탕진한 도박 중독 아내, 남편에게..소름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파이낸셜뉴스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적자 전환 가능성'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역대급 감산' 나오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11597?sid=101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감산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흔들리는 삼성 깃발. /사진=뉴스1 올해 1분기 실적 악화를 겪은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감산을 선언했다. 수요 부진으로 판매가 줄고 재고가 쌓인 상황에서 생산량을 줄여 업황 반등을 노리겠다는 목표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 만큼 감산 규모는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63조원, 영업이익 6000억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19.0%, 영업이익은 95.8% 급감했다. 정보기술(IT)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객사들이 재무 건전화 목적으로 재고 조정을 시행한 영향이다. 삼성전자는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선 것은 재고 증가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 재고자산은 지난해 말 29조5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6조4551억원) 대비 76.6% 증가다.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율은 같은 기간 9.7%에서 11.6%로 늘었고 재고자산회전율은 4.5회에서 4.1회로 감소했다. 재고가 확대됐으나 재고자산이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는 늦춰진 것이다.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도 감산 배경으로 꼽힌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 가격이 올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DDR4 1Gb\*8) 고정거래가격은 지난해 3월 3.41달러에서 올해 3월 1.81달러로 46.9% 하락했다. 낸드플래시 메모리카드·USB용 범용제품(16Gb\*8 MLC) 가격도 같은 기간 18.3%(4.81달러→3.93달러) 떨어졌다.업계는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감산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 63조8214억원, 영업이익 8531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년도 2분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7.3%, 93.9%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손실 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어정쩡한 감산 규모를 유지해 업황 회복이 지연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감산 규모를 늘려 피해를 줄이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최첨단 미세공정으로의 전환, 연구·개발(R&D)용 엔지니어링 웨이퍼 투입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감산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업계는 이를 두고 자연적 감산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감산 기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엔 감산을 공식 언급한 점을 보아 감산 규모가 클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기자 프로필  
  
  
  
  
  
  
  
  
  
  
  
  
  
  
  
  
  
  
  
  
김동욱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  
  
  
  
  
美 부통령도 반한 '한화솔루션' 태양광 모듈 공장… '솔라 허브' 뭐길래  
  
  
'구본준의 LX' 3년차 성적표… 무역만 웃었다  
  
  
  
  
  
  
  
머니S의 구독 많은 기자  
  
  
머니S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머니S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머니S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머니S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머니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여론확인 '머니S설문'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커플 "韓 인종차별 심해"… 어이없는 불만  
시험관 16번 실패… 현진영 아내 "폐경 두렵다"  
걸어가며 대변 본 남성… 길바닥에 그대로 버리고 도주  
'이승기♥' 이다인, 결혼식서 등장한 대왕 티아라  
정은표, 모친상 8개월 만에 부친상… "벚꽃 핀 날"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머니S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퀄컴 의존 줄이자" 칼 간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시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95339?sid=105

삼성, AP솔루션 개발팀 신설 등고성능칩 엑시노스 경쟁력 강화AMD 손잡고 GPU 최적화 집중플래그십 모델 갤S25 탑재 유력   
  
  
  
   
  
  
  
삼성전자 '엑시노스 2200'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오는 2025년 출시하는 갤럭시S25에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를 다시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 AP 엑시노스 라인업에 미국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AMD의 차세대 그래픽 솔루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의 두뇌'라 불리는 AP는 모바일 기기의 연산과 멀티미디어 구동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반도체다. AMD의 그래픽 솔루션은 초저전력·고성능 라데온 그래픽 설계자산(IP)을 기반으로 한다. 이 그래픽 솔루션을 엑시노스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삼성전자는 콘솔게임 수준의 고성능·고화질 게이밍 경험을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와 AMD는 지난 2019년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그래픽 기술을 저전력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양사는 지난해 첫 번째 협력 결과물인 GPU 엑스클립스를 엑시노스2200에 탑재했다. 엑시노스2200은 갤럭시S22 시리즈에 적용되며 퀄컴 스냅드래곤8 1세대에 못지 않은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발열과 성능 모두 기대에 못 미치면서 GOS(게임최적화서비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S23에 퀄컴 스냅드래곤을 100% 사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의 갤럭시S 시리즈 적용을 2년간 중단하고 퀄컴 스냅드래곤을 채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퀄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가격 협상력이 약해지고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원가 부담이 커진 상태다. 최근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AP 매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9.9% 늘어난 9조3138억원을 기록했다.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전체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로 카메라 모듈과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제치고 가장 컸다.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는 MX사업부에 AP솔루션 개발팀을 신설하며 엑시노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IT 팁스터(정보유출자)인 레베그너스(@Tech\_Reve)는 "삼성전자가 AMD와 함께 갤럭시 전용 고성능칩 '엑시노스2500(가칭)'에 들어갈 GPU 작업을 하고 있다"며 "AMD IP를 기반으로 최적화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출시하는 갤럭시S25에는 '엑시노스'를 다시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출시하는 엑시노스에 AMD와 협업한 GPU가 들어가겠지만 어떤 스마트폰에 적용할지는 MX사업부 선택에 달려 있다"면서도 "엑시노스를 보급형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플래그십(최고급 모델) 용도로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윤 기자 (solidkjy@fnnews.com)  
  
  
  
  
기자 프로필  
  
  
  
  
  
  
  
  
  
  
  
  
  
  
  
  
  
  
  
  
구자윤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안녕하세요 구자윤 기자입니다. 언제든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폰15프로 이렇게 나온다".. 기다란 버튼은 뭐지? [1일IT템]  
  
  
아이폰15프로맥스 가격 400만원 육박하나 [1일IT템]  
  
  
  
  
  
  
  
파이낸셜뉴스의 구독 많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구독되었습니다. 메인 뉴스판에서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구독 해지되었습니다.  
  
  
닫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최신 트랜드를 깊게 [fn파인더]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민, 미코 출신 12세 연하 여성과 새벽 4시에 만나서..반전  
박수홍 아내는 박수홍 친구와 사귀다가 친구가 죽자..무슨 일?  
배와 가슴에 상처 공개한 유명 여가수.. 남편 "내가.."  
실종 한 달 만에 강가에서 발견된 변사체, 부검해보니 사인은..  
BTS와 1대 1로 붙어도 이기는 임영웅, 몸값이 무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파이낸셜뉴스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